

## 장관주재 간담회 및 송년리셉션

### 방산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 토의



**국방** 부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12월 17일 국방회관에서 조영길 국방부장관주재로 70여개 방산업체 대표, 이연숙 국회 국방위원 및 국방부관계관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산업의 현안토의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키 위한 방산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가 추진중인 23개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방산업체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수준 제고와 수출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금년 전반기에 이어 2차 회의이다.

이날 조영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은 확고한 국방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안보위협 대비와 국방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23년만에 처음으로 내년도 국방비를 증액시켜 GDP 2.8%를 반영함으로써, 자위적 방위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국방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면서, 전력투자사업 관리 체제 및 기능을 조정하여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방산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군사외교활동을 강화하여 국제방산협력 증진에 힘써 왔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방산정책설명에서 국방부는 중소기업청 기술혁신자금을 활용한 부품국산화 자금지원 확대, 국산화 촉진을 위한 가격보상제 시행, 방산 전문·계열화 정비 추진 계획 등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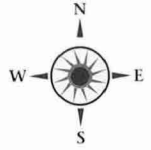
이어 진행된 국방부장관과 방산업체 대표간 토론에서는 방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상호 신뢰와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방위산업발전을 위해 방산업체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방산업체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 정부표창 및 국방부장관 표창을 전수 및 수여하였다. 대통령 표창은 LG이노텍(주), 국무총리 표창은 (주)한화가 수상하였고, 국방부장관 표창은 (주)이오시스템, 두원중공업(주), (주)로템, (주)한벨헬리콥터, 오리엔탈(주), 삼성탈레스(주) 등 6개사가 수상하였다.

이와 같은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방산업체와 정부간 협력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03 방산정책 심포지엄

###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 강구」



**방위** 산업 육성 대책 수립을 위한 2003년 방산 정책 심포지엄이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방안 강구」를 주제로 지난 12월 16일 정부, 학계, 연구계, 방산업체 임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캐피탈 호텔에서 열렸다.

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정진태 국방부 방산지원과장이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이원승 이오시스템 사장이 토론자로 토의하였다.

이호석 한국국방연구원 비용분석실장이 「방산물자 수출증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제도 연구」를 발표하고, 김철한 국방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어 최창하 국방품질관리소 소프트웨어담당관이 「국방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배찬호 엠텍 부사장이 토론자로 토의하였다.

또한 황치복 국방부 체계개발과장이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발표하고, 장길희 한화 상무가 토론자로 나서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 국과연, 유도무기학술대회 개최

### 함대함, 신궁, M-SAM 및 장거리 대잠 유도무기체계도 전시



**국방** 과학연구소는 2003년 11월 20일 국과연 당과 복지관에서 군·산·학·연구소에서 내방한 6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유도무기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과연 3체계개발본부가 주최하고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가 후원하는 대회로 개최식, 특별강연, 유도무기 개발성과 비디오상영, 논문발표 및 토의, 국방과학관과 특별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박용득 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미래 전장은 C4ISR과 정밀타격무기가 연동된 네트워크 중심의 기술전쟁으로 전개되며,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를 대비한 핵심 기술과 부품 연구에 매진하고 선진국 기술통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기술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고 국내 기술자립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자”고 역설하면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조규필 국과연 3체계개발본부장의 대회사와 안동만 국방부 연구개발관과 유명대 공군 방공포병사령관의 축사가 이어졌다.